

지역 영화 교류의 장부터 현대 다큐 확장까지 ‘눈호강’

목포아트시네마, 27일부터 대전·부산 등 한 자리...토크·좌담도 광주극장, 3월19~25일 日 거장 오다 카오리 지하 3부작 상영회

목포와 광주, 대구·대전·부산을 잇는 지역 창작자들이 모여 영화를 한 자리에서 비추고, 바다 건너 일본 감독의 실험적 시선까지 만나는 시간이 마련된다.

먼저 목포아트시네마는 오는 27일부터 3월1일까지 ‘지역영화 교류상영회’를 펼친다.

목포와 광주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에서 영화 창작자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단체들이 참여해 이들이 만든 지역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개인적인 관심사에서부터 잊힌 역사의 새 발길 등 지역의 특색이 담긴 소재를 작품화해 눈길을 끈다.

먼저 목포 장·단편에서는 목포 유일 영화제작단체로 지역영화 창작·상영 플랫폼 역할을 하는 씨네로드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남문화재단 창작공간지원사업으로 운영한 ‘오감동 씨네클럽’을 통해 배출한 지역 감독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단편으로는 ‘파무’ (김한나)와 ‘영화관 문 닫습니다’ (변민영), ‘혼자 있을 때’ (윤창민), 장편으로는 ‘스카이바운드’ (이상명)가 각각 소개된다.

이와 함께 대전 청년영상 창작자 커뮤니티인 INK (Image&Kids)는 오한영 감독의 ‘이걸 왜 하세요?’와 ‘오발탄’, ‘두부밥 일기’를 스크린에 올린다.

대구 독립서점이자 상영공간인 이미지북은 ‘고등학생 블로그’ (권재원·이예랑)와 ‘나쁜 소녀는’ (이지연), ‘운동화날’ (김주리), ‘전투로부터 멀리’ (류승원)를, 창원 영화동호회 마산영화구락부는 ‘다시 부르는 소녀들의 이름_ 양덕동, 한일의 기억’ (장가영)과 ‘안티토크’ (박영근), ‘싱어’ (박중인), ‘나비 살던 방’ (박보현)을 상영한다. 영화 상영 뒤에는 마산영화구락부·스카이바운드 토크가 마련된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광주씨네클럽은 ‘작은 관찰자’ (이민영)와 ‘굿투씨유’ (김선영),

‘순남’ (정광식) 등으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영화 상영 후에는 광주씨네클럽 및 씨네클럽 신전토크가 이뤄진다.

상영회 기간 중 28일에는 ‘동시대 지역영화와 대안적 흐름들’이라는 주제로 좌담이 열려 지역에서 제작·상영되는 영화의 현재를 진단하고 상업 중심 영화 산업 구조 속 지역영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아울러 광주극장은 오는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시네마토그래프와 함께 ‘오다 카오리: 지하 3부작 상영전’을 선보인다.

이번 상영전은 일본 영화의 새 지평을 여는 차세대 감독 오다 카오리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오다 카오리 감독은 1987년 오사카 출생으로, 2010년대부터 자신의 일상을 소재로 한 다큐멘타리를 찍기 시작했다. 그는 2013년 헝거리 거장 벨라 타르가 보스니아 사라예보에 설립한 영화학교 필름 팩토르 과정을 이수하며 이미지 및 사운드를 활용한 서사 너머를 포착해왔다.

그의 영화는 일상의 관찰에서 출발하지만, 점차

비일상적 공간에 축적된 역사적 기억과 존재의 흔적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특정 인물의 서사에 집중하기보다 공간과 소리, 빛과 아들이 벗어내는 감각을 통해 관객을 사유하게 만드는 게 특징이다.

이번 상영전에서 소개될 3편의 작품은 이같은 미학이 집약된 연작이다. 감독이 지난 10여 년간 천착해 온 ‘지하’라는 공간적 테마를 관통한다. 3부작은 지하라는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여정을 스크린에 옮기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를 다시 비추는 빛의 기록이기도 하다.

그의 장편 데뷔작인 ‘아라가네’ (2015)는 보스니아의 탄광을 배경으로 한다.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 깊은 곳에서 광부들은 매일 8시간씩 고대 근무로 생계를 잇는 노동을 한다. 영화는 설명을 최소화한 채 기계 장치의 굉음과 헤드램프의 불빛이 난무하는 탄광에서 이들의 노동과 환경을 치밀하게 포착한다.

‘세노테’ (2019)는 멕시코 유카탄반도의 신비로운 샘 세노테를 배경으로 한다. 고대 마야 문명에서 현재와 미래를 잇는 통로로 여겨졌던 이 공간에서

감독은 물의 흐름을 따라 시간의 층위를 더듬는다. 세노테 주변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이들의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빛과 어둠 사이로 흐르는 물은 따라 기억의 메아리와 영혼의 목소리를 선사한다.

가장 최근작인 ‘언더그라운드’ (2025)는 1945년 오키나와 전투 당시 민간인들의 몸을 숨겼던 동굴을 무대로 한다. 과거의 참극을 기억하는 노인이 죽은 이들을 회고하는 증언과 그 흔적을 어루만지는 젊은 여인의 형상을 통해 남겨진 것들의 존재에 귀 기울인다.

영화는 지하와 지상, 상실된 것과 남겨진 것, 산자와 죽은 자를 교차시키며 이를 연결, 공간에 스민 기억을 따라간다.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초청되기도 했다.

광주극장 관계자는 “‘아라가네’와 ‘세노테’, ‘언더그라운드’로 이어지는 지하 3부작을 통해 오다 카오리 감독의 영화세계에 입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영 시간표 및 자세한 사항은 목포아트시네마 인스타그램,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에서 각각 확인하면 된다. 전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한·불 수교 140년... 프랑스서 시집 출간

전남 순천 거주 석연경 시인 ‘황금 성전의 숲’ 선배 ‘말의 사원’ 진입 여정 투영 등 ‘보편적 은유’ 밝혀

전남 순천에서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 소장으로서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석연경 시인이 ‘말의 사원’으로 들어가는 시의 여정을 투영한 불어 시집 ‘La forêt du temple d’or’ (황금 성전의 숲)을 파리의 문학 전문 출판사 Editions du Cygne (백조출판사)에서 펴냈다. 프랑스와 한국 수교 14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 현대시가 프랑스 문학계 맥락 속에서 독립된 단행본으로 소개된 것이다. 시집은 현재 프랑스 아마존을 비롯한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 중이며, 향후 낭독 행사와 문학 대담 등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프랑스어 원제 ‘La forêt du temple d’or’에서 temple은 특정 종교적 공간을 지시하기보다 신성한 장소, 곧 마음과 사유가 머무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는 종교적 공간이라기보다 언어와 침묵,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가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성스러운 정신적 장소이며, ‘황금 성전의 숲’은 공(空)을 시적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자 인드라망의 시적 구현으로 이해된다.

특히 화엄사상의 핵심 비유인 인드라망(因陀羅網)은 우주를 무수한 구슬이 서로를 반사하며 끝없이 얽힌 구조로 설명한다. 하나의 존재는 전체를 반영하며, 전체는 하나에 깃들어 있다. 숲은 개별 시편들이 모여 형성하는 유기적 세계를 상징한다. 또 세계의 존재들을 상징한

다. 기억과 시간, 생과 소멸의 사유가 층위를 이루며 겹쳐지는 구조 속에서, 독자는 생태적이고 우주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프랑스 작가이자 문학 연구자인 장-피에르 폴라크는 서문 ‘ENTRONS DANS LE TEMPLE DES MOTS’ (말의 사원으로 들어가다)에서 이를 “비밀스러운 사원의 문을 여는 경험”이라 표현했다. 프랑스 독자들이 낯선 문화적 풍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 문턱을 넘은 순간 언어와 은유의 깊이를 발견하게 된다는 평이다.

이번 시집은 시인의 시 세계를 관통해온 자연(생태), 불교적 사유, 사랑, 우주적 상상력 등 네 개의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인의 사유 지형을 하나의 구조로 제시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자연은 사유의 근원적 장소로 등장한다. 바다의 숨결과 파도의 울동, 산과 나무, 정원의 침묵은 인간의 시간과 기억을 환기하는 매개다. 자연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인문학적이며 윤리적 공간으로 기능한다.

불교적 사유는 침묵과 절제 속에서 드러난다. 첫 시편이 한 스님의 화장 장면에서 시작된다. 이는 점에 상징적이다. 죽음이 종결이 아니라 순환의 일부로 제시된다. 무상과 연기라는 세계관을 인간을 고립된 주체가 아니라 관계 속 존



재로 재배치한다. 이는 생태적인 사유의 발현으로 읽힌다.

사랑은 기억과 시간 속에서 재해석된다. 도려험지는 감정의 빛, 스쳐 지나간 인연의 잔광은 절제된 언어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만든다. 우주적 상상력은 인간을 자연과 별빛, 공간의 순환 속에 위치시킨다. 정원은 식물의 공간을 넘어 ‘우주의 축소판’으로 형상화된다. 미시적 공간과 거시적 질서가 교차하며, 시는 한국적 장소성을 넘어 보편적 존재론의 차원으로 확장된다.

이 네 축은 자연은 순환과 이어지고, 순환은 사랑의 덧없음과 만난 뒤 우주적 인식으로 확장되며, 그 인식은 다시 자연으로 귀환한다. 반복과 회귀의 원형 구조 속에서 시집은 하나의 통합된 사유 공간을 형성한다.

석연경 시인의 시는 사람과 자연을 매개로 인간과 우주의 관계를 재구성한다. 문화적 표지를 넘어 사유의 구조를 공유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K-인문학’의 가능성 모색... 실천적 응답 제시

전동진씨 ‘메타인문학&메타인문학 어휘사전’ 펴내

기술·데이터·비인간 존재가 인간의 경계를 재편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인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고, 그에 대한 하나의 실천적 응답을 제시한 전동진씨 학술연구교수(전남대 인문학연구소)가 ‘메타인문학&메타인문학 어휘사전’(문학출판)을 최근 펴냈다.

‘K-인문학의 가능성을 모색하다’라는 부제로 나온 이 책은 단순한 개념서나 용어집이 아니라 인문학 스스로를 성찰·해체·재구성하는 ‘메타적 사유’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이는 인문학의 외연 확장이 아닌, 인문학 내부로부터의 근본적인 재출발로 이해하면 된다.

이 책은 다섯 개의 핵심 개념군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메타언어학은 언어와 의미의 자기반영적 구조를 탐구하고, 메타시학·서사학은 시와 서사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을 분석한다. 메타윤리는 기술과 데이터 시대의 책임 있는 삶과 글쓰기를 사유하며, 메타기술성은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존재론적·미학적으로 재해석한다. 마지막으로 메타스타일은 감정·윤리·철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글쓰기와 삶의 형식을 제시한다.

특히 ‘아버터’, ‘메타버스’, ‘트랜스휴먼’과 같은 새로운 존재 양식, ‘반려의 윤리’와 ‘반려의 상상력’으로 확장된 윤리 감각, 그리고 ‘기술성-윤리성-스타일성’으로 구성된 생활세계, 이런 삼각 구조가 이 책이 제안하는 핵심 사유 틀이다. 이는 한국 인문학이 세계 인문학 담론 속에서 제시할 수 있는 고유한 성찰의 구조로, 저자는 이를 ‘K-인문학’의



가능성으로 명명한다. 이 책은 저자가 5년간 수행한 국가 지원 연구 ‘코로나 이후 서정시의 위상적 역할’의 성과를 바탕으로 집필됐다. 더불어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통해 집필과 퇴고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글쓰기의 실천적 사례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를 통해 인문학이 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다시 해석하고 윤리화하는 메

타적 실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메타인문학&메타인문학 어휘사전’은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를 넘어, 철학과 사유의 영역에서도 한국 인문학이 세계와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으로, 하나의 세계, 하나의 자아에 머무르지 않는 시대, 우리가 어떤 언어로 자신과 자기의 생활 세계를 성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독자에게 건넨다. 그리고 그 질문에 함께 머물며 사유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인 전동진씨는 전남 화순 출생으로 전남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3년 ‘시와 정신’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시집 ‘그 때운시 요리법’을 펴냈으며, 저서로 ‘서정의 윤리’, ‘서정시의 시간성: 시간의 서정성’, ‘문사철 글쓰기’, ‘문화의 스타일: 기술성 윤리성’, ‘포에토로지-서정시의 위상학’, ‘김수영과 비트겐슈타인’ 등이 있다. 서울사이버대에서 ‘가족교정상담학’, 세종사이버대에서 ‘환경조형학’을 수학하며 학문적 배경과 경험을 넓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